

(미성숙 영구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齒科大學 小兒齒科學 敎室

孫 同 銖

齒科領域에 三大疾患은 齒牙우식증, 不正咬合, 齒周疾患이란 用語가 時代的 變遷과 그 나라의 環境여건에 따라 內容이 달라지고 있다.

얼마전 Copenhagen Royal dental school에서 來韓한 Erik Kisling敎수의 特강내용을 摘要하면 그곳 Denmark는 人口 500만中 齒科의사의 수는 4,500명으로 齒科의사 1人當 人口 1,100명을 擔當하고 있는 실정이며 多年간의 계속적인 예방사업의 결과로 齒牙우식증은 완전히 퇴치되었고 치수치료나 齒牙발거는 거의 불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因하여 齒科의사의 一손이 남아서 다른 大 業이 强구되고 있는 現實이며 이에 反하여 小兒의 不正咬合과 齒牙外傷의 빈도가 심한 증가의 一路에 있다고 한다.

이는 分明히 그 나라의 社會구조와 環境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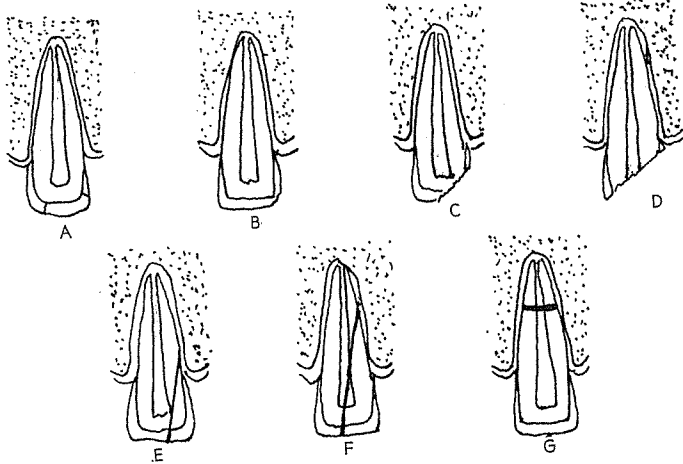
건, 기계문명 발달로 因한 二次的 副作用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近來에 있어 齒牙의 外傷이 점차로 높아가고 있음을 눈앞으로 直感할 수 있다.

앞으로 몇년에 걸쳐서 young permanent dentition을 中心으로 外傷齒牙의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한 分類법과 그 治療법을 소개하려 한다.

INJURIES TO THE HARD DENTAL TISSUES AND THE PULP

- Crown infraction (A)
- Uncomplicated crown fracture (B.C)
- Complicated crown fracture (D)
- Uncomplicated crown-root fracture (E)
- Complicated crown-root fracture (F)
- Root fracture (G)



서울특별시인정제84호

聖母 齒科 技工 所

代表 金 泰 益

서울특별시 鍾路區 昌成洞 25-1

☎ 72-8563

418